



Venture Challenge 2008

A Passion For Excellence!!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21세기 대한민국 성공 벤처의 역사를 이어갈 창조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예비 벤처인 발굴 프로젝트 <Venture Challenge 2008>이 5월 15일 성대하게 막을 열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벤처챌린지 2008>은 서울 산업대학교에서 주최하고 벤처산업협회 부설 서울벤처인큐베이터가 프로그램 전반을 진행하였다. 청년실업문제 해결 및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열린 이번 행사는 21세기 성공벤처의 주역으로 성장할 차세대 예비벤처기업가를 위한 기본역량강화 프로그램인 '기본이 강한 벤처 창업하기'와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업계획을 겨루는 '창업경진대회',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타당성 검토, 프리젠테이션 스킬 지도 및 상담이 이루어지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 4월 18일엔 본 행사에 앞서 행사의 일환으로 대학벤처창업 1호인 (주)비트컴퓨터 조현정 회장의 특강과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의 축하공연이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6월 27일까지 벌여질 예비 벤처인의 축제인 <Venture Challenge 2008>이 미래 벤처의 희망으로 가득하길 기대한다.



벤처 챌린지 2008
이모저모

창업의 무대를 마련하자

글_ 정회훈 (서울벤처인큐베이터 센터장)

아카시아 향기 그윽한 대학교 캠퍼스의 늦은 오후 시간, 최근 개관한 교내에서 가장 높은 테크노파크 건물 6층 대강당으로 학생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순식간에 1백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로 강당이 북적인다.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 ‘기본이 강한 벤처 창업하기’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이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의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해왔기에 참가자 수가 부쩍 증가되고 호응도가 높아진 것이 내심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결과라 믿어 뿌듯해하고 있는데 담당 교수님은 의외의 이유를 들려주신다. “애들이 수료증 준다고 하니까 많이 신청한 거예요.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요.”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취업에 대한 대기업 편중현상이 현실이라고는 하나 이렇듯 실감하고 보니 창업지원을 업으로 삼는 입장에선 씁쓸하기까지 하다.

>> 사라진 예비벤처 창업자들

최근 부쩍 얼어붙은 창업분위기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기술벤처 창업은 상대적으로 더욱 부진하여 이를 타개하고자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마련이 정부 중심으로 매우 분주하여 창업 단계를 최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의 분위기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창업 주체들의 움직임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담과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이유일 것이다.

벤처창업이 대세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를 돌이켜 보면 대기업에서 연구소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참으로 많은 인재들이 기꺼이 창업대열에 합류하였고 이들이 함께 만들었던 성공에 대한 비전의 힘은 엄청나서 마치 신바람과도 같이 대한민국을 들쭉이게 했었다. 수많은 창업아이디어와 투자유치설명회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세상에 쏟아냈고 이런 분위기는 창업으로 인생설계를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을 증가시켜 대학마다 창업동아리가 만들어지고 활발한 활동이 이뤄졌다. 비록 부실벤처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실망으로 그 모든 것이 거품이었다고 외면되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이 보여줬던 미래에 대한 열정과 포부까지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과 같은 기술벤처창업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그 때 벤처의 꿈이 피어나던 시점과 비교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무엇보다 창업이 갖는 비전과 성공의 꿈을 확산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창업자를 동기 부여시킬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이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기업가마인드를 형성시키고 벤처창업의 가치를 키워주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창업 동기부여 프로그램 필요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업경진대회 활성화가 효과적이라 본다. 먼저 언급한 대학교의 창업과정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결과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그동안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랜 벤처의 불황 속에서 벤처창업의 꿈은 이미 캠퍼스를 떠나버렸던 것이다.

인터넷벤처 붐을 이끌어냈던 미국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으나 여전히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과 창업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결과이다.

몇몇 대학이 창업경진대회를 유지하고 있으나 교내 행사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창업활성화에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고 기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량이 줄었다고 우물을 폐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물물을 퍼 올리기 위한 마중물을 붓는 정성이 지금 우리의 벤처창업활성화에도 필요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기업이나 투자사, 유관 기관등도 창업아이디어와 기술을 찾아내고 이를 발전시켜줄 수 있도록 예비벤처창업자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력해주길 희망한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한 창업자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무대를 열어주는 일 만으로도 더욱 많은 이들에게 기술벤처 창업을 꿈꾸도록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